대설 피해 신속 복구 총력

심민 임실군수, 행정안전부·전북자치도와 피해 상황 확인·복구 현황 살펴

심 민 임실군수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최근 대설로 인한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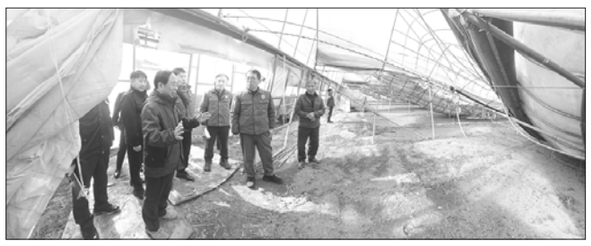
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 6일 방문한 행정안전부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 등과 같이 설을 전후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성수면과 신평면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심 군수는 박 국장, 오 실장과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현황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이번 대설로 인해 관내 비닐하우스 26곳과 축사 5곳이 붕괴되는 등 농업·축산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도 지속적인 폭설이 이어짐에 따라 연일 분주하게 피해 복구 및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재난대책본부를 풀가동하고, 주요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제설 작업을 신속히 진행, 눈길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최근 대설로 인한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하고, 전광판과 CBS 문자를 통해 군민들에게 대설 및 한파 대비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장 중심의 안부 전화 시스템 등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세심히 확인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 작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군은 폭설에 따른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지속 추진

순창군, 맞춤형 기업 지원… 지난해 기업애로 해소율 79.2%

순창군이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제조업체와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관내 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산업국 팀장급 공무원 27명을 전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총 53건의 기업애로 사항 중 42건을 해결하며 79.2%의 높은 해소율을 기록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인력난(11건), 자금지원(10건), 제도개선(5건), 판로확대(4건), 환경·안전(4건) 등이었다.

눈에 띄는 해결 사례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농공단지 환경개선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이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안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서 도로 보수, 차선 재도색, 풀베기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관내 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며 "올해는 분기별 현장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부서간 협업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순창, 일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담제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지역 주민 위한 악취 돈사 매입·철거 추진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등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을 투자해 '임실군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매입 대상 돈사가 소재한 사업대상지는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왕의 숲 자연 휴양림과 임실IC가 위치해 상습·고질 민원 발생 대상 축사 중에서 우선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하게 됐다.

임실군 관련 부서의 끈질긴 노력으로 소유자에게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보상 등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또한, 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 1월 농식품부 대면 평가를 통해 이번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접수

순창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등 총 10종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이며 1농가당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이며 지원 단가를 초과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2월 1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년이내 미지원 농가, 여성단독세대일 경우 우선지원, 경작면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독감 지속 유행 따른 예방접종 당부

남원시보건소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70~90% 예방효과가 있으며, 만약 독감에 걸리더라도 합병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호흡기질환 등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최대한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시보건소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는 △65세이상 어르신 △13세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남원시민 중 60-64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부부와자녀), 한부모가족이며, 남원시민 중 14-59세는 유료이며, 접종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남원시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및 임신부는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장학재단, 춘향 인재 장학생 14일까지 모집

남원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에서는 2025학년도 춘향 인재 장학생을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우수·보람·희망·특기 장학생 부문으로 총 143여명을 선발해 총2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우수장학생은 개별 2백~5백만원, 보람과 희망장학생은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발 기준은 2025학년도 진학 학년 기준이며, 우수 장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 특기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예정이며, 개별 접수가 불가능하다.

춘향장학재단은 지난 1995년 설립 때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2,487명의 장학생들에게 34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각 부문 장학생 신청자는 성적증명서, 대학교 합격증명서 등 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 교육체육과(춘향장학재단)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620-560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내달 4일까지 사업체조사 실시

남원시가 이달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로,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체 특성, 지역별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한다.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총 8,843개 사업체가 현장조사 대상이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와 비대면조사(전화, 인터넷 등)를 병행하여 실시되고 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본 조사는 남원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반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순창군은 군민의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상반기 군민사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목은 생활양재, 광목자수, 기타교실, 도자기 공예, 미술아카데미,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서예교실, 사군자, 웰빙댄스(차차차댄스), 라인댄스(에어로빅) 등 총 11개 과목이다.

수강생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연말에는 한 해 동안 교육으로 갈고 닦은 수강생의 작품을 모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해 취미생활에 따른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많은 군민이 군민사회교육에 참여해 여가생활을 통한 일상 속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